



◁성철 스님이 생전에 입었던 누더기 승복. 불교의 무소유 정신을 말없이 보여준다. (사진제공 정경락)

# “이 절에 특별한 음식이...”

## 사찰음식점 경영 김연식씨 ‘눈으로 먹는...’ 퍼내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져 가는 것들이 있다. 사찰음식도 예외는 아니다. 스님들의 손끝으로만 이어져 와 점차 사라져가는 사찰음식의 조리법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담은 책이 나왔다.

서울 인사동 사찰음식전문점 ‘신촌’의 주인인 김연식(56)씨가 전국 사찰을 돌며 절마다 전하는 요리 비법을 기록해 펴낸 <눈으로 먹는 절음식> (우리출판사)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절의 안살림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 책에는 수원 용주사, 여주 신륵사, 합천 해인사, 구례 화엄사 등 일곱 군데 사찰의 요리 130여 가지와 그에 얽힌 설화와 벽화, 사찰 주위의 풍광까지 담겨있다. 용주사의 무릇뿌리조림, 신륵사의 연잎밥, 해조류인 뜬부기와 된장, 들깨로 만든 여수 향일암의 뜬부기국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찰음식들과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사찰음식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김씨는 “절 음식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지역과 사찰에 따라 재료와 조리법이 다르다”며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재료가 가진 천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사찰 요리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여수영 기자 snopy@buddhazip.com



◁용주사 무릇뿌리



◁신륵사 연잎밥

### 천연의 맛·향·색을 최대한 살리는게 사찰요리 특징



◁해인사머위탕

### 용주사 무릇뿌리 조림 향일암 뜬부기국 신륵사 연잎밥



◁화엄사 상수리 썩밥



◁발우



◁오합



◁춧대

아름다운 근본은 편안하며, 편안함의 근본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라는 ‘비움의 정신’을 담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들이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문화상품 전문회사 212가 ‘비움’을 주제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생활소품들을 디자인 문화상품으로 내놓았다.

나무로 만든 발우와 춧대, 은과 자개를 이용한 합과 시계, 천연염색 천을 이어 만든 보자기와 이불, 천연염색 한지를 접어

## ‘비움 정신’ 담은 문화상품 도쿄·파리 등 세계시장에



◁동각

만든 편지지, 대나무로 만든 각종 공예품과 알파벳을 새긴 물도장 등이 212가 선보인 디자인 문화상품들이다.

212는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한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디자인 문화상품 브랜드로서 ‘비움(VIUM)’을 처음 선보인 이래, 올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점을 개설하는 등 앞으로 해외 50여 비움 스토어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알리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 한다.

## 성직자 服飾 60점 한자리에

대한민국 종교복식展 프레스센터서 26일~31일

‘옷’은 가장 민감하게 시대를 반영한다. 오늘날처럼 ‘몸’을 보호하는 기능보다 ‘패션’ 기능이 중요시되는 때는 더욱 그렇다. 또한 옷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복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종교 성직자들이 입는 옷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종교의 복식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종교마다의 복식은 어떤 차이와 특징들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대한민국 종교복식展’이 26일~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원불교 역사박물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중단 성직자들의 복식 60여점이 한자리에 선보인다.

‘유형’에 민감한 세속의 패션과 달리 종교의 복식에는 각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상이 녹아있어 스님 잿빛 누더기 옷 무소유정신 표현 전시기간동안 입어보는 체험공간도

치와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성철스님의 잿빛 누더기옷이 불교의 무소유의 정신을 웅변하듯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전례복은 교황청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서 불교 복식은 스님들의 일상복을 비롯해 가사, 장삼 등 의례복과 예비승인 사미승들이 입는 사미복, 행자복 등이 선보인다. 원불교는 대종사의 두루마기와 바지저고리를 비롯해 남녀 정복과 평상복 등을 전시한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각종

교의 의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공간도 마련하고, 의복뿐 아니라 각 종교의 의례도구도 전시하고 있어, 여러 종교의 같고 다름을 쉽게 알게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시와 더불어 ‘한국의 종교복식과 그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2813-2208

문화 담당=이은자 기자 elee@buddhazip.com

## 중앙박물관 ‘이달의 문화재展’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 전시’ 3월 주제로 ‘고려말 조선초의 보살상’을 선정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관련 유물 4점을 박물관 로비에서 3월 31일까지 전시한다.

고려 후기는 통일신라 이래 이어져 온 불상 조성 전통이 이어지면서도 고려적인 조형 감각이 완연히 드러나는 세련되고 온화한 불상 양식이 유행하던 시기다. 또한 14~15세기에는 라마교가

들어와 이국적인 분위기가 짙은 불상 양식이 유행하기도 했다. ☎2398-5000

## 제 27회 명무명인展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 줄 제27회 명무명인전이 20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인간문화재 이애주씨의 승무, 안숙선씨의 판소리를 비롯해 대금산조, 살풀이춤 등 각 분야 명인들이 대거 참여해 우리 춤과 소리의 우수성을 선보이게 된다. ☎2585-7318

#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 모델가 등 있습니다. \* 각 사찰을 인벤키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만월등



팔모집등



팔모조림등



공단등



## 종 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경계를 구별하고 영겁과 고행을 멈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관여연등제작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각종 명상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 연등용 거르막터 (등록 제122168호) / 등각용 실용신안 (등록 제0985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경기도 하남시 중곡동 180-1 e-mail : chanduk21@hanmall.net